

[ 종합·해설 ]

총선 격전지

# 박상천 공세에 신중식 방어전 불만

### 고흥·보성

박상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가 막판에 공천을 신청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된 지역구다.

신중식 현 의원과 장성민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이 경쟁하게 된 이유도 있지만, 공동대표의 수도권 출전 여부가 통합민주당의 '공천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고흥 선거구에서 13, 14, 15, 16대 의원을 지낸 '정치적 토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흥·보성'으로 선거구가 확대·관련된 지난 17대 총선에서 뜻하지 않은 탄핵 후폭풍을 맞아 신 의원에게 패배의 쓴 잔을 마신 만큼, 이번 선거는 박 대표에게는 설욕전이기도 하다. '지역구 탈환'에 나선 박 대표는 총심한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지역민과 교감

### 민주 '공천 개혁' 의지 시금석... 예비후보 8명

#### ■ 고흥·보성군 출마 예정자

이름	나이	소속	학력	경력
김병태	53	통합민주당	호남대 대학원 졸업예정	5·18 광주민중항쟁 시민협상대표
박상천	69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신중식	68	-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현 의원
장성민	44	-	서강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16대 국회의원
장귀석	54	한나라당	광주대 법학과	보성군 홍보대사
박성근	46	평화통일기정당	순천제일대 경영학과 졸업	전 고흥로타리클럽회장
박지환	45	무소속	서라벌고등학교 졸업	서울상업고등학교 운전기사
진종근	59	무소속	연세대 대학원 졸업	전 담양, 고흥군수

의 폭의 넓다는 점에서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을 견제할 강력한 여당을 만들기 위해선 중량감 있는 지역구 의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정당을 꾸리는 통합민주당의 공동대표로서, 출신 지역을 버리고 수도권에 출마하는 결단을 보여야만 '공천개혁'과 이를 통한 당 이

미지 쇠신'에 도움이 된다는 당 내부의 요구가 부담이 되고 있다.

수성에 나서는 신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발전엔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간지인 '시사저널' 편 집·발행인 출신으로 국정홍보처 차장을 역임한 신 의원은 2012여수세계

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의욕을 보여왔다.

서울 금천구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 역시 통합민주당 후보로 고흥의 표발을 갈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선택당의 대선 후보로 정치 일선에 나선 바 있다.

진종근 전 고흥군수도 출마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선거 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가 최근 탈당, 무소속으로 표발을 높고 있는 진 전 군수는 담양군수, 나주부시장 등을 역임한 전문행정가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병태 민주당계 고흥대표는 구대 정치 청산을 통한 정치 개혁을 외치며 도전장을 냈다.

한나라당에서 장귀석 보성군 후보 대사가 공천자로 확정됐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제2의 인사파동' 공방

민주,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교체 강력 요구...한나라선 일축

최시중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 내정자,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 새 정부 요직 3인의 인사와 관련, 4일 통합민주당은 교체를 요구하며 강공을 이어간 반면 한나라당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며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통합민주당='제2의 인사파동'으로 규정하며 3명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최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당초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했으나, 청문회는 실시하되 최소한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 방통위원장, 김하중 통일장관, 변도윤 여성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 대책 그리고 7일 열릴 김성호 국정원장 및 이만희 환경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응 방침을 논의한다.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할 것이냐 이명박 정부의 방통통신 장악기도에 대해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에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정치인이나 대통령 측근을 앉힌 전례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또 김성이 보건복지장관 후보자와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 등에 대한 교체 요구를 계속했다.

◇한나라당=민주당의 교체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세 사람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교체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김성이 장관의 경우 본인의 해명서를 분석했는데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 "앞으로 임명이 되고 잘못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와 관련, "좌파정권 10년 동안 그야말로 왜곡될 대로 왜곡된 방통통신정책을 정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승수 총리 국회의장 예비 임채정 국회의장이 4일 국회의장실을 예비한 한승수 국무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이 총재가 예산·홍성 출마를 결심함에 따라 이 지역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홍순표 의원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 이회창, 예산·홍성 출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4·9총선에서 자신의 선영이 있는 충남 예산·홍성 지역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청에서 예산·홍성에 출마하는 것이 총선 전략상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의견에 따르면 "아직 공천을 신청하지 않아 공식 출마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선택이 되면 입후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당과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저를 꾸준히 지켜보고 지지해준 고향분들에 대한 보답의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가 예산·홍성 출마를 결심함에 따라 이 지역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홍순표 의원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연합뉴스

# 유선호 3선이나 유인학 권토중래나

### 장흥·강진·영암

장흥·강진·영암 선거구는 인근 강진·완도 선거구가 해체되면서 강진이 합쳐져 만들어진 지역구로, 현역 의원과 전직 국회의원, 전직 차관, 언론인 등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통합민주당 공천 신청자만 9명에 달하는 탓에 공천을 하기전부터 금품살포 논란이 불거지는 등 과열 조짐도 보이고 있다.

현역인 통합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15·17대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승리, 여의도에 재입성하겠다는 각오로 표발을 일구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며 쌓아온 지역 지지도와 현안 해결에 힘을 쏟은 점을 강조하며 공천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또 3선 고지에 올라야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같은 당의 유인학 전 의원도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바다

### 민주당 9명 출마표...안종운·김영근씨도 분전

#### ■ 장흥·강진·영암군 출마 예정자

이름	나이	소속	학력	경력
곽동진	45	통합민주당	성균관대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 국가정보원 의전과장
김명진	53	-	성균관대 대학원 언론학 박사과정 졸업	전 EBS 부사장
강영근	49	-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졸업	전 한국경제신문 정치부장
안종운	59	-	서울대 농학과 졸업	전 농림부 차관
위성진	33	-	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사	NCS미디어 대표이사
유선호	55	-	서울대 법과대학원 졸업	국회의원
유인학	69	-	전남대 대학원 졸업	13, 14대 국회의원
이종근	50	-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	생활정보신문 큰거리장 편집 겸 발행인
정종열	57	-	한양대 법학석사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상임대표
강성태	53	한나라당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졸업	한·미FTA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위원
김성재	46	무소속	일본히로시마시무사대학원 사회학 석사	광주비엔날레 해외홍보대사

민심을 높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재선 의원의 의정 경험에다 세계적석문화협회 총재 등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쌓아온 인맥과 경륜을 내세우며 지역 정서에 호소하고 있다.

같은 당 안종운 전 농림부 차관도 농업전문가임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농림부

와 농촌공사를 거치면서 배운 지식과 노하우를 농·어업의 고장인 장흥·강진·영암 지역민들을 위해 쏟아 부었다는 각오로 표발을 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 수석부대변인을 지냈던 김영근 전 한국경제신문 정치부장도 참신성과 지역발전의 일꾼론을 기치로 강한 의욕을 보

이고 있다.

김명진 전 EBS 부사장이 '정치꾼'이 아닌 새로운 인물론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천용택 전 의원 보좌관과 국가정보원장 의전과장을 지낸 곽동진 전 이수아닷컴 대표이사도 강한 야당 건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정종열 민주화운동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세심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공천을 신청하고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수성 총리 의전특보로 했던 위성진 NCS미디어 대표이사과 생활정보신문 큰거리장 편집 겸 발행인인 이종근씨도 공천을 신청했다.

이외 한나라당에서는 체경근 당 중앙위원이 공천을 확정짓고 표발투로 누비고 있으며 강성태 광주비엔날레 해외홍보대사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김지경기자 dok2000@kwangju.co.kr

**2008년 (제18기) 한자 한문 지도사 자격모집**

● **모집대상**

- 학력기준: 1949년 1. 1. 이후
- 연령기준: 1949년 1. 1. 이후
- 학력기준: 1949년 1. 1. 이후
- 학력기준: 1949년 1. 1. 이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08. 3. 14 ~ 2008. 3. 20
- 접수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1-1
- 접수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 **시험방법**

- 시험종목: 한자·한문
- 시험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1-1
- 시험일자: 2008. 3. 22

● **시험비용**

- 시험비용: 10,000원
- 합격비용: 10,000원

● **문의처**

- 전화: 02-2000-0000
- 팩스: 02-2000-0000
- 홈페이지: www.hanja.go.kr

**40년 전통! 합격률 1위! 전국수석 배출! 특원출신**

#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98.7%

**3월 3일**

**광주고시학원**

2008년 3월 3일

02-227-0000

02-227-0001

02-227-0002

**2008년 국가직 제18기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합격이란 - 합격이 응원입니다.**

# 7.9 공무원 합격 압도적 위

**7.9-이론만 100%** **100-문제풀이만 100%** **전종목 만과만 100%**

**4월 1일**

**한빛공무원학원**

02-234-0234

**2008년 국가직 제18기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합격이란 - 합격이 응원입니다.**

# 7.9 공무원 합격 압도적 위

**7.9-이론만 100%** **100-문제풀이만 100%** **전종목 만과만 100%**

**4월 1일**

**한빛공무원학원**

02-234-0234